

야생화

농업연구사 김 정 선

I. 야생화 재배관리의 기초

1. 야생화의 개발 추이와 전망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꽃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1975년 1인당 국민소득이 590달러이던 당시 1인당 꽃 소비량은 190원에 불과 했지만 국민소득이 14배가 늘어난 1994년과 비교해볼 때 꽃의 소비량은 60배가 증가하여 꽃에 대한 소비량이 얼마나 짧은 시간에 증가하였는지 알 수 있다.

2. 야생화 개발의 중요성 및 유의할사항

야생화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꽃을 키우고 가꾸야 한다는 다분히 정서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야생화의 개발은 막대한 수입대체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야생화의 개발은 단순히 이에 그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는 그린라운드가 닥칠 것이며 많은 식물에게도 국가별로 권리가 정해져 현대 일부 개발된 품종에 대하여 적용되는 로얄티가 원산지 개념으로 지불 되어야 하는 시대가 올 것 이라는 전망이다. 가깝게는 현재 무분별하게 수입하여 재배하는 수많은 원예종들에 대해 로얄티를 지불해야하며 이미 이러한 분쟁은 시작되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일의 자원을 함부로 방치하여 유출된 우리 식물자원에 대해 로얄티를 지불하고 역수입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3. 야생화의 정의 및 종류

야생화의 재배관리에서 대상이 되는 식물은 우리 나라의 산야에서 자연상태에서 자라는 식물 가운데 화훼, 식용, 약용 등 가치가 있는 것으로써 지금까지 품종화하며 집약적 재배를 하는 식물에서는 제외되었던 식물들이다. 이러한 식물들을 총칭하는 용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용어마다 조금씩 규정범위가 다르므로 구분해서 쓰는 것이 좋다. 우선 야생식물(wild plant)이란 우리 산야에 특별히 심지 않아도 스스로 자라나는 식물

로써 원산지는 외국이지만 토착화된 귀하 식물도 포함된다. 그 가운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야생화(wild flower)라고 함은 야생화로 식물 가운데 특히 꽃이 아름다워 관상적 가치가 있을 경우에 쓰이는 말이지만 최근에는 야생식물 대신 야생화란 용어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야생식물(native plant)은 야생식물 중 귀하 식물을 제외하고 우리 산야에서 본래부터 자라던 식물 을 말한다. 그밖에 야생화의 우리말로써 들꽃, 산야에서 자라는 초본류를 총칭하는 산야초 등의 용어가 쓰이고 있다.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식물의 종류는 약 4천여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 가운데는 나자식물은 물론 양치류도 포함되어 있다. 자생식물은 식용, 약용, 목재용 등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지만 그 가운데 관상적 가치가 있는 식물의 종류는 약 600종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숫자는 쓰임새의 개발에 따라 얼마든지 확대 될 수 있다.

4. 야생화의 특징

가. 생육 및 재배상의 특징

- 시비 : 과도한 시비는 과대성장 초래
- 초장의 조절 : 도장방지
- 광선 : 자생지 특성고려
- 토양 : 자생지 특성고려
- 자생지 과다 수집 금지 : 유전자 풀의 감소
- 분근 및 파종 : 2차년도 생산
- 각종에 따른 적합한 용도 및 생육지 개발

나.야생화의 생태적인 특성

- 특정한 처리 없이 잘 자란다
- 병충해의 피해가 적다
- 생육장소 변경에 따른 초장의 변화가 심하다
- 동일종 다른 생태환경에 다른 특성 발견 : 초장(고산식물), 화색(고도, 수분) 화형, 분지형

5. 야생화 개발

가. 개발의 문제점

- 남획에 의한 자생지 파괴
- 희귀 및 멸종 위기 식물 소멸
- 적합한 재배 특성이 밝혀져 있지 않음
- 종별, 개체별, 자생지별 변이 폭이 큼
- 구체적인 용도와 소비시장 개척이 필요함
- 자생 식물에 대한 홍보가 부족함
- 야생식물을 원예화하는 단계에서 식물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연구가 부족함

나. 다양한 범위의 이용

- 화훼용 : 식재(관상용, 지피용등), 분식, 절화, 분재, 분경
- 식 용 : 과실, 잎, 열매등 식용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식물
 - 잎 : 곰취, 참취, 분취, 곤달비, 돌나무, 모싯대, 열레지, 고사리, 고추냉이, 삼지구엽초, 수리취 등
 - 뿌리 : 등굴레, 잔대, 인삼, 더덕, 도라지, 산마늘, 나리류 등
 - 줄기 : 독활, 머위, 호장근, 비짜루 등
- 약 용 : 한방 또는 민간요법에서 약용으로 쓰이는 식물
 - 잎 : 갯취, 삼백초, 약모밀, 삼지구엽초 등
 - 줄기+잎 : 쪽, 쓴풀, 으름, 향유, 배초향, 백리향, 음나무 등
 - 뿌리 : 마, 용담, 백선, 시호, 천마, 만삼, 현삼, 할미꽃, 투구꽃, 천남성, 참당귀, 민들레, 도라지, 개미취 등
 - 열매 : 등취, 구기자, 오미자, 하늘타리 등
 - 꽃 : 칩, 뼈꼭채, 구절초류, 산국, 감국등
- 기 타
 - 향신료 : 고추냉이, 배초향, 산마늘, 두메부추, 박하, 방아잎 등
 - 기호료 및 향료 : 산국, 백리향, 삼지구엽초, 배초향 등
 - 밀원자원 : 꿀 및 꽃가루를 다량함유
 - 염료 : 쪽, 잇꽃, 지치, 치자나무, 대청 등
 - 기타 : 전분자원, 미술품, 장식품, 사진 등

II. 야생화 재배관리

1. 계절별로 보는 야생화

계절		식물의 종류
봄	초봄 봄 늦은봄	복수초, 앓은부채, 노루귀, 바람꽃류, 현호색, 개구리갓, 얼레지앵초, 민들레, 구슬붕어, 동의나물, 쪽도리풀, 할미꽃, 매미꽃, 들양지꽃, 매발톱꽃, 돌나무, 금낭화
여름	초여름 여름 늦은여름	노랑매발톱, 기린초, 대극, 바늘꽃, 참좁쌀풀, 터리풀, 냉초, 물매화, 노랑물봉선, 까치수염, 금불초, 큰산고리풀, 기름나물, 배초향, 한라돌쩌귀, 송이풀, 곡취
가을	초가을 가을 늦은가을	마타리, 빌개미취, 도라지, 톱풀, 물옥잠, 용담, 곰취, 미역취, 석산, 벚풀, 구절초, 포천구절초, 호장근, 들국화, 군개쑥부쟁이, 한라구절초, 서흥구절초
	겨울	억새, 조릿대, 바위떡풀(실내), 털머위(남부또는실내), 실꽃풀(남부또는실내), 한란(남부또는실내), 보춘화(남부또는실내)

2. 소재의 확보

야생상으로 자라는 식물들은 대부분 열악한 환경조건을 견디는 힘이 있으나 저마다 다른 생육조건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키우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따라서 처음 야생화를 키우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잘 고려하여 식재한 야생화를 선택하는 것이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다.

가. 소재의 선택

○ 주변에서 흔하게 자라고 있는 것 중에서 선택한다.

각 지방마다 산과 들에 많이 자라는 야생화의 종류가 계절에 따라 다르므로 처음에는 주변에서 흔히 보았던 것 중에서 채취하여 열심히 공부해보는것이 바람직하다.

○ 생육환경이 비슷한 것을 고른다

자생지의 환경이 너무 다르면 한곳에 모아놓고 기르기가 까다롭다. 양지를 좋아하는 것과 음지를 좋아하는 것, 또한 건조한 곳을 좋아하는 것과 습한 곳을 좋아하는 것을 한곳에서 동시에 재배하기가 어렵다.

○ 식물체가 소형이며 다년생인 것이 좋다.

식물체가 크게 자라는 것은 화분에 심어서 아름답게 기르기가 쉽지 않다. 일년생 식물도 매년 다시 구해야 하거나 종자를 뿌려서 다시 키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반면, 다년생 식물은 매년 분갈이 하며 포기도 나누니 분갈이 공부도 되고 좋을 것 이다.

○ 희귀 및 멸종 위기식물 과 보호식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제외한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과 보호 야생식물은 그 채집이 금지되어있다. 자연환경 또한 우리가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재산 이므로 우리의 당연한 의무라 하겠다.

나. 야생화 입수방법

○ 야생화 전문화원에서 구입하기

- 전문지식이 있다고 알려진 곳을 찾는다
- 초보자로서는 값이 비싼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 가정에서 재배하기 쉬운 것을 고른다
- 시들거나 잎의 색깔이 퇴색한 것은 피하고 잎에 윤기가 있고 야무져 보이는 것을 고른다
- 화분의 흙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은 좋지 않다.

○ 선배 동호인에게 분양 받기

지역마다 야생화 동호인 모임이 활성화 되어있으니 인터넷에서도 쉽게 지역의 동호들을 찾을 수 있다. 여러 모임의 선배 동호인들로부터 분양 을 받고 재배에 대한 많은 지식도 전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재배의 기본

○ 되도록이면 깊이가 얇은 화분에 재배한다

모든 식물은 지상부의 부피만큼 지하부가 발달하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지하부의 생육을 최대한 억제시키면 지상부의 초장도 짧아지게 마련이다. 뿌리 발달을 최대한으로 억제시킬 수 있는 얇은 화분이 이상적이다.

○ 시비량을 적당히 줄인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능한 시비량을 줄이거나 시비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질소질 비료의 경우는 식물체를 도장시키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 관수량을 가능한 줄인다

젖은 물주기는 식물을 도장시키고 쇠약하게 하며 병충해 발생을 조장하므로 화분이 건조하다 싶을 정도로 말랐을 때 물을 준다.

○ 화분에 사용하는 용토는 통기성과 배수성이 좋은 마사토를 주로 사용한다. 재배용토는 거름기가 거의 없고 통기성과 물빠짐이 좋은 마사토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식물의 종류에 따라서는 부엽토를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나, 혼합비를 적절히 조정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햇빛이 적당히 차단되는 반그늘에서 재배한다

자생식물의 종류는 대단히 많다. 그 대부분은 반그늘에서 재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산성 식물과같이 자생지에서는 햇빛이 잘 드는 양지에서 생육하지만 재배시에는 반그늘 조건에서 재배하는 것이 좋다.

특히 난과식물이나 양치식물을 비롯한 대부분의 잎이 큰 자생식물은 그늘에서 재배하여야 한다. 그러나 너무 심한 그늘에서 자란 식물체는 연약하고 쉽게 도장하므로 관상가치가 떨어진다.

또한 너무 강한 광선에 노출되면 잎 끝이 말라버리거나 전체가 노랗게 변해버리므로 광선관리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통풍이 좋은 곳에서 적당히 흔들리면서 자란 식물체는 튼튼하고 정상적인 식물로 자란다.

특히 고산성 자생식물의 경우에는 여름철의 고온다습한 조건에 약하므로 반드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재배하는것이 바람직하다.

○ 재배상은 가능한 한 높게 설치한다

자생식물을 화분에 심어 관상하는 경우 재배상을 설치해야한다.

재배상은 통풍과 채광조건을 고려하여 적어도 70cm 정도는 지상에서 높게 설치하는 것이 좋다. 경험적으로도 높은 곳에서 자란 식물체가 튼튼하고 초장도 짧게 자란다고 알려져 있다. 낮은 곳보다 높은 곳에 화분을 두면 관상에도 편리하다.

○ 분갈이는 식물의 종에 따라서 신중하게 한다

화분에서 자란 식물체는 2~3년에 한번 정도 분갈이를 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분갈이 과정에서 식물체를 적당히 분주하여 개체 수를 늘리기도 하고 엉긴 뿌리를 풀어주게 된다. 또한 적당하게 뿌리를 정리하며 양분이 소진된 용토를 갱신해 주게 되는데, 새로 발달한 식물체는 생육이 너무 왕성해지므로 시기나 횟수에 주의한다.

○ 식물의 생육을 억제하기 위하여 주변에 뿌리 발달이 왕성한 식물을 심어준다.

생육이 너무 왕성한 식물을 정원 등에 식재하면 관상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이런 경우 주변에 잔뿌리 발달이 왕성한 다른 자생식물을 함께 심어주어 자연적인 생존경합에 의해 가꾸고자 하는 식물의 생육을 억제시키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은 주변의 식물을 철저히 관리하여 자생식물의 도태를 방지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

○ 초장이 너무 길게 자라는 식물은 6월경에 적당히 적심을 해준다

다년생 자생식물의 경우 키가 왕성하게 자라는 시기는 중부지방을 기

준으로 하여 6월경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키를 낮출 필요가 있거나 분지가 필요한 식물은 적심을 해준다

그러나 너무 강한 적심은 식물체에 상당한 영향을 주므로 쇠약하게 되는 원인이 되거나 개화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다.

○ 토양은 식물재배의 기본 요건이다. 습기가 많은 것을 좋아하는 식물조차도 물빠짐이 좋은 토양에서 잘 자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식물에 따라 적합한 토양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영양 공급이 풍부하고 통기성, 배수성 및 보습성이 좋아야 한다.

입자 3~6mm 보통 굵은 입자의 용토가 좋다. 공극이 너무 작으면 뿌리가 썩기 쉽고 너무 크면 양분 유실이 잘된다.

4. 식물의 증식

〈증식방법의 종류〉		
포자번식		고사리류
종자번식		꽃이 피는 대부분의 호화류
영양번식	꺾꽂이	용담,쑥부쟁이,패랭이류
	포기. 알뿌리나누기	앵초,매발톱,원추리,복수초, 백합류
	휘묻이	메꽃류,좁쌀바귀,계요등
조직배양		난과식물

가. 종자 파종

○ 채종 적기 파악

- 깃털종자(민들레,구절초등)는 깃털이 활짝 퍼지기 직전
- 터지는 꼬투리 종자(물봉선, 십자화과, 콩과등)는 터지기 직전 종이 봉투에 담아 건조
- 붓꽃과 나리류는 꼬투리를 따서 정선, 천남성류는 완전히 익은 후 과육제거

○ 파종방법

- 직파 : 이식을 싫어하거나 종자가 크고 유묘의 생장이 빠른식물
- 상파 : 유묘의 생장이 느리고 직근성인 것

○ 파종시기

- 1년초 : 8월~11월 성숙된 종자를 채종 후 다음해 4월 파종. 바로 파종 시 멀칭
- 2년초 : 5월~6월 종자 성숙된 종자를 채종 즉시 파종후 멀칭
- 다년초 : 이른봄 개화. 채종 즉시 파종
- 다년초 : 5~7월 개화중. 채종 즉시 파종 당년 발아 이식
- 다년초 : 7~11월 개화중 이듬해봄 파종
- 2년발아 종 : 나리류. 인편삼 이용

○ 파종

- 종자 및 토양소득
- 호광성 종자(초본성 미세종자) 및 혐광성 종자(초본성대형종자)에 따라 복토
- 종자가 보이지 않을 만큼 복토(미립종자 복토안함)
- 발아기간 : 파종 후 15일~30일
- 겨울을 넘기지 않으면 발아를 안하는 것은 냉장고에 50~60일 보관

○ 종자 보관

밀봉 또는 화분에 씨앗.모래를 차례로 넣어 5° C 전후로 어두운 곳에 보관

나. 꺾꽂이

- 당해 연도 개화가능하고, 동일 형질 묘를 짧은 시일에 대량생산 할 수 있는 잇점이 있어 발아나 포기증식 어려운 종이나 변이종 등에 좋음

○ 종류

- 굳기정도 : 녹지삽, 숙지삽
- 사용부위 : 눈, 줄기, 잎, 땅속줄기, 뿌리를 눈이 2~3개 달린 부분

○ 방법

- 오전, 습도가 높고 바람이 없는날
- 용토: 마사토, 버미큐라이트, 펠라이트, 피트모스
- 날카로운 면도날 등으로 잘라 마르지 않도록 하고 → 발근 촉진제 담금 → 축축한 묘상에 꽂음 →신문지등 적셔 덮음(단 돌나물과

식물은 자른 후 1~2시간 말렸다가 꽃음) → 모판에 가끔 분무기로 물을 주고 거름은 안됨 → 순이 나면 포트에 이식 → 1주일간 충분한 관수 및 차광 → 야외

다. 포기(알뿌리)나누기

- 모체와 동일하고 쉽게 꽃이 되며, 번식이 어려운 종에 사용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대량의 묘를 생산할 수는 없다
- 방법 : 가을 또는 얼음이 녹고 눈뜨기 직전 → 눈을 확인 → 2~3층 씩 붙여 포기 나눠 심음
- 애초, 매발톱, 원추리, 초롱꽃, 복수초, 노루귀 등은 포기나누기를 하면 꽃이 크고 건강함
- 식물에 따라(피나물류, 현호색류, 백합류)따라 알뿌리(덩이줄기)를 갈라 이끼에 심음

6. 식물의 관리

- 이식(묘상관리) : 대개 파종 후 1주일 후 발아 많으면 솟아줌
- 포토관리 : 큰상자에 넣어 반그늘에 넣거나 신문지 덮음
- 본잎 5매 전후에 포트에 이식 → 잎이 겹칠 만큼 많으며 본토에 이식
- 포트묘 : 심을 시 원래 포트의 흙면과 분의면이 수평이 되도록 한다
- 물주기(수분관리)
 - 본밭에 옮겨 심은후 1주일간은 충분한 관수 → 이후는 자주 관수 할 필요 없음
 - 씨앗이 잔 식물 및 화분재배식물은 저면 관수
 - 물주기는 천천히
- 거름주기(시비)
 - 잘못된 거름(과다시비, 일부화학비료) : 웃자람, 변색, 향기감소, 병충해 등 유발
- 온도 및 기타 환경조절
 - 지온 유지 방법 : 멀칭(지온상승, 잡초방지)터널
 - 여름 : 별가림, 냉방 및 통풍장치, 겨울 : 보온 또는 방한시설

II. 주요 야생화의 종류 및 재배

□ 비비추

- 과 명 : 백합과
- 학 명 : *Hosta longipes* Matsumura
- 특 징 : 중남부지방에 분포하는 여러해살이풀. 여름에 연한 보라색꽃이 피어 매우 아름답다. 최근 유럽에서는 다양한 비비추의 품종들이 크게 인기를 얻고 있다.
- 재 배 : 종자를 파종하거나 포기나누기로 번식. 물빠짐이 좋은 토양. 강한 광선에도 잘 적응하나 반그늘이 좋다.

□ 원추리

- 과 명 : 백합과
- 학 명 : *Hemerocallis fulvar*
- 특 징 : 전국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로 6~7월에 지름 8cm 정도의 연한 주황색꽃이 피며 높이는 60cm정도이라 꽃이 크고 매우 아름다워 세계적으로 많은 품종이 개량되어 있다.
- 재 배 : 비교적 토양적응력이 강하여 아무 곳에서나 잘 자라나 과습을 피하는 것이 좋다. 통기성이 부족하면 진딧물이나 흰가루병이 생기기도 한다. 번식은 종자를 직파 하거나 포기 나누기
- 용 도 : 화단 지피식재, 절화, 화분등 식용, 약용
- 유사한 식물 : 애기원추리, 큰원추리, 골잎원추리(잎에 골이 있음), 홍도원추리(원예적 가치 큼), 각시원추리(가장 혼잡, 노란색) 등

□ 등글레

- 과 명 : 백합과
- 학 명 : *Polygonatum adorum* var Ohwi
- 특 징 : 전국의 산야의 경사면, 낙엽수림의 하부, 숲가, 밭둑 등에서 자생하는 여러해살이풀. 지하경이 뻗어나가며 꽃은 봄에 긴종모양의 유백색 꽃이 달린다. 잎은 평행맥이 있으며 10여장씩 달리고 높이는 30cm정도이다.

- 재 배 : 어느 정도 별이 드는 곳(반그늘)이 적당하며 사질양토, 적절한 시비가 필요하며 종자를 직파하거나 지하경을 잘라 번식한다.
- 용 도 : 화분, 화단, 줄기와잎, 식용(등글레차), 약용(옥죽)
- 유사한 식물 : 각시 등글레, 용등글레, 왕등글레

□ 은방울꽃

- 과 명 : 백합과
- 학 명 : *Convallaria keiskei* Mig
- 특 징 : 중부 이북의 산지의 숲속이나 숲가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 높이는 20cm정도자라며 타원형의 커다란 잎이 두장 나오고 그 사이로 종같이 생긴 하얀꽃이 총상화서로 달려 5~6월 개화
- 재 배 : 지하경이 왕성하여 분주가 효과적이거나 실생묘는 개화까지 5년이상 걸림. 비교적 아무곳에나 잘자라남. 습기가 충분하고 비옥한 반그늘 또는 양지가 좋다.
- 용 도 : 건물주변, 교목의 하부, 화단 등에 군식, 초물분재

□ 각시붓꽃류

- 과 명 : 붓꽃과
- 학 명 : *Iris rossii* Barker
- 특 징 : 전국의 양지바른 산야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 근생하여 봄에 지름 4cm정도의 보라색꽃이 피며 높이는 20cm정도이다.
- 재 배 : 성장말기(7월이후)에 차광이 요구되며 비교적 아무곳에서나 잘 자란다. 10월경에 포기나누기를 하면 이듬해 꽃을 볼 수 있고 이밖에 7월쯤 채종한 종자는 파종해도 된다.
- 용 도 : 분화(초물분재), 지피용군식, 약용(뿌리)
- 유사한 식물 : 금붓꽃(키가 작은 노란색꽃), 노랑붓꽃(희귀, 특산식물이고 키가 작은 노란색꽃이 2개씩 달림), 노랑무늬붓꽃(희귀식물이며 키가작고 흰색꽃에 노란 무늬), 솔붓꽃(키가 작은 보라색 꽃으로 가늘다), 난쟁이붓꽃 등

□ 범부채

- 과 명 : 붓꽃과
- 학 명 : *Belamcanda chinensis*(L)DC
- 특 징 : 야산 혹은 언덕지의 풀밭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 높이는 1m까지도 자라며 편평한 잎이 부채살처럼 배열된다. 꽃은 7~8월에 황적색 바탕에 적자색반점이 있는 꽃이 달린다.
- 재 배 : 꽃이 아름답고 재배가 매우 쉽다. 8월에 종자를 채취, 직파한다. 어린묘는 5월쯤 이식하면 당년에 개화한다. 특별한 관리는 필요하지 않으나 물빠짐이 좋고 유기물이 섞인 사질양토, 광선이 잘드는 곳에 식재하면 좋다.
- 용 도 : 지피식물로 군식, 화분에 분식, 약용(사간)
- 유사한 식물 : 대청분재(대청도 및 백령도 등에 있는 희귀식물, 연보라색꽃이 여름에 핀다)

□ 패랭이꽃

- 과 명 : 석죽과
- 학 명 : *Dianthus sinensis* L
- 특 징 : 전국의 산지의 양지 바른 곳에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로 7~8월에 진한 분홍색의 꽃이 핀다.
- 재 배 : 강건한 식물로 척박한 곳이나 햇볕이 강한 곳에서도 잘 자라며 과도한 시비는 오히려 도장을 유발 할수 있다.
- 용 도 : 공원, 도로변, 광장 및 절개지 초물분재 또는 분경, 약용(노염, 청혈, 이누과혈, 통경등에 효과)
- 유사한 식물 : 술패랭이(꽃은 분홍색이고 꽃잎 가장자리가 술처럼 늘어져 매우 아름답다)

□ 동자꽃

- 과 명 : 석죽과
- 학 명 : *Lychnis siebaldii* V.H
- 특 징 : 전국의 습지에 분포하는 여러해살이 풀로 7~8월에 지름 4cm정도의 주황색 꽃이 피며 높이는 40cm정도이다.

- 재 배 : 건조한 약함. 습기가 있는 반음지. 충분한 관수가 필요하고 주로 종자를 직파하여 번식하면 발아율이 높아 효과적이고 녹지삽, 포기나누기도 한다.
- 용 도 : 습기가 있는 정원, 분식
- 유사한 식물 : 털동자꽃, 제비동자꽃(꽃잎의 끝이 제비 꼬리처럼 갈라져 있어 아름답다).

□ 복수초

- 과 명 : 미나리아재비과
- 학 명 : *Adonis amurensis* Refel et Radde
- 특 징 : 제주도, 중분산간지역, 서해도서지역등에 분포하는 여러해살이 풀로 지역에 따라 변이가 많으나 2월말부터 6cm 정도의 윤기있는 아름다운 꽃이 핀다.
- 재 배 : 지역에 따라 꽃의 크기, 잎이 나는 시기 및 개화시기 등에 차이가 많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식재해야 한다. 고산, 저온에 서도 잘 자라며 여름철 지표면의 피복이 필요하다. 5월에 채종한 종자를 낙엽수림하에 바로 직파하면 이듬해 봄에 발아하며 꽃이 피기까지는 5년이상 걸린다. 포기 나누기로 번식도 가능하다.
- 용 도 : 군식하면 지피식재용으로 가능하다. 화분, 화단, 약용

□ 매말톱

- 과 명 : 미나리아재비과
- 학 명 : *Aquilegia buergeriana* Var *oxysepala* kitamura
- 특 징 :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분포하는 여러해살이 풀로 5~6월에 적갈색에 노란 무늬가 있는 독특한 모양과 색을 가진 큰 꽃이 달리며 높이는 60cm정도이다.
- 재 배 : 재배가 용이하며 서늘하고 배수가 잘되는 곳이 좋다. 결실한 종자를 직파하면 매우 잘 나온다.
- 용 도 : 분화, 화단, 절화
- 유사한 식물 : 하늘매말톱(남색 꽃이피며 키가 크지않고 꽃이 탐스러워 관상용으로 매우좋다), 노랑매말톱

□ 노루귀류

- 과 명 : 미나리아재비과
- 학 명 : *Heratica asiatica* Nakai
- 특 징 : 한반도 전역에 분포하는 여러해살이 풀로써 4월경 잎보다 꽃이 먼저피며 꽃의 지름은 1.5cm 정도이며 분홍, 흰색, 남보라색 등의 꽃이 핀다 잎에는 털이 많고 3갈래로 나뉘어진 독특한 모양이다.
- 재 배 : 반그늘이 적당하며 부식질이 많고 배수가 잘되는 토양이 좋다. 번식은 종자를 파종(직파)한다.
- 용 도 : 작은 화분에 심거나 화단에 군식
- 유사한 식물 : 섬노루귀(꽃과 잎이 동시에 나며 노루귀보다 조금 크다. 울릉도에만 자란다) 새끼노루귀(잎이 작으며 무늬가 선명하다)

□ 동의나물

- 과 명 : 미나리아재비과
- 학 명 : *Caltha Palustris* Var *membranacea* Turcz
- 특 징 : 중북부 지역의 깊은 산속의 습지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잎은 둥근 심장모양으로 두텁고 윤기가 나며 꽃은 4~5월에 노란색으로 핀다.
- 재 배 : 6월쯤 채종하여 반그늘 습지에 직파, 노지 재배시 차광막이 필요. 햇볕이 잘드는 습지에서 생육이 좋다.
- 용 도 : 습지, 연못 주변의 지피식물, 분물, 나물

□ 금낭화

- 과 명 : 양귀비과
- 학 명 : *Dicentra Spectabilis* Lemaire
- 특 징 : 우리나라 중남부 지방의 산지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로 꽃은 5월에 여러송이가 이삭모양으로 달리는데 모양과 색(진분홍)이 매우 아름다우며 잎은 깃털모양으로 갈라지고 식물체 전체에 흰빛이 돈다. 높이는 50 ~ 60cm정도이다.

- 재 배 : 6~7월에 채종한 종자를 파종상에 바로 뿌리고 이듬해 7~8월에 이식한다. 분주도 가능하지만 좋지는 않으나 비옥하고 통기성이 좋으며 습기가 많지 않은 곳이 좋다.
- 용 도 : 화단 식재, 분식, 식용(묵나물), 약용(모단근)

□ 깽깽이풀

- 과 명 : 매자나무과
- 학 명 : *Jettersonia dubia Benth*
- 특 징 : 산지의 중북이하에서 자라는 희귀식물이며 지역별 변이가 심하다. 꽃은 봄에 연보라색으로 잎보다 먼저(동시에 나는 것도 있다) 피는데 매우 아름다우며 잎은 둥글고 가장자리는 결각이 있으며 연잎처럼 잘 젖지 않는다. 높이는 15cm 정도이다.
- 재 배 : 재배하기에 쉬우며 주로 포기나누기를 하지만 파종도 가능하다. 약간 그늘이 있는 곳
- 용 도 : 얇은 화분에 심거나 지리식물로 화단에 군식, 약용(선황련)

□ 족도리풀

- 과 명 : 쥐방울덩굴과
- 학 명 : *Asarum sieboldii Mag*
- 특 징 : 중부지방에 주로 분포하는 여러 해살이풀로 4월에 족도리 모양을 한 암갈색의 꽃이 피며 잎은 심낭형으로 점차 크게 자란다.
- 재 배 : 개화기까지는 광선이 필요하나 개화후에는 반그늘에서 잘 자란다. 노지에서 월동하며 부식질이 많은 점질 양토가 적합하고 대게 근경을 잘라 번식한다.
- 용 도 : 분식, 화단용, 약용
- 유사한 식물 : 개족도리 잎에 무늬가 있어 관상적으로는 더 가치가 있다. 희귀식물이며 최근 중부지방에서도 드물게 발견되고 있다.

□ 기린초

- 과 명 : 돌나물과
- 학 명 : *Sedum kamtschaticum* Fisch
- 특 징 : 전국의 산야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써 다육질이다. 6~8월에 노란색 꽃이 피어 아름다우며 높이는 25cm.
- 재 배 : 번식은 줄기 삽목(줄기꽃이)이 가장 손쉬우며, 직파도 가능하고 일반적으로 아무곳에서나 잘자라며 과습이나 강한음지는 피하는 것이 좋다.
- 용 도 : 분식, 화단군식(지리식재), 암석원 착생, 초물분재(바위 붙여 사용), 절화, 식용, 약용(비체)
- 유사한 식물 : 섬기린초(울릉도에서 자란다), 애기기린초(키가 작으며 꽃이 커서 원예용으로 적합하다), 태백기린초(태백산에서 처음 발견된 종으로 위쪽의 잎이 크다), 둥근잎 평의비름(주왕산에서 자라는 특산, 희귀 식물로 꽃이 자주색이고 잎이 둥글고 분백색이다),

□ 돌단풍

- 과 명 : 범의귀과
- 학 명 : *Aceriphyllum rossii* Engler
- 특 징 : 중부이북 지역 계곡의 절벽이나 바위에 붙어 사는 여러해살이 풀이다. 잎은 단풍잎과 비슷하며 5월에 20cm 정도의 꽃대위로 백색의 꽃이 달린다. 가을에는 잎에 붉은 단풍이 든다.
- 재 배 : 분갈이 할 때 포기나누기를 하며 이른 여름 녹지삽을 하기로 한다. 오전중 적절한 햇볕이 드는곳이 좋으며 공중습도는 높으나 물빠짐이 잘되는 곳이 좋다
- 용 도 : 화분(분경), 수생식물원, 식용(어린잎나물)

□ 노루오줌

- 과 명 : 범의귀과
- 학 명 : *Astilbe chinensis* var *dauidii* Kr

- 특 징 : 전국의 햇볕이 잘드는 숲가장자리. 물가나 습지에 사는 여러해살이 풀로서 여름에 분홍색 꽃이 원추화로서 달리며 높이는 30~70cm 정도이다.
- 재 배 : 양지성이나 별가림이 필요하며 내습성이 있다. 10월에 종자를 채취하여 직파하는 것이 좋으며 포기나누기를 하여 심으면 당년에 꽃을 볼수 있다. 건조시 흰가루병이 발생한다.
- 용 도 : 분화, 화단용, 지피조경용으로 군식, 식용(어린잎), 약용(소승마)
- 유사한 식물 : 진퍼리 노루오줌(진분홍색), 숙은 노루오줌(꽃차례가 늘어진다), 흰노루 오줌(흰색꽃이 핀다)

□ 제비꽃

- 과 명 : 제비꽃과
- 학 명 : *Viola mandshurica* w. Becker
- 특 징 : 전국의 양지바른 들판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로 이른봄에 독특한 모양의 보라색 꽃이 핀다. 높이는 10cm정도
- 재 배 : 종자번식이 잘되며 포기나누기, 뿌리 꽃이도 가능하고, 배수가 잘 되고 햇볕이 잘드는 곳이면 어디든 잘자란다.
- 용 도 : 작은 화분에 분식, 지피녹화용군식
- 유사한 식물 : 노랑제비꽃(꽃이 노란색,고산성), 태백제비꽃(꽃이 크게 자라고 향기가 있다), 알록제비꽃(잎에 알록 무늬가 있어 좋다), 흰제비꽃(흰색의 꽃이 핀다), 고깔제비꽃(꽃이 분홍색이며 잎이 나올 때 고깔처럼 말려 나온다), 남산제비꽃(흰색의 꽃이 피며 잎이 잘게 갈라져 있다), 뒤편제비꽃(연한 보라색꽃이 피며 꽃이 많아 원예용으로 좋다) 등

□ 앵초

- 과 명 : 앵초과
- 학 명 : *Primula sieboldii* form. *spontanea* TAKEDA
- 특 징 : 전국산지의 습한 곳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로 4월에 진한 분홍색 꽃이 피며 주름진 잎과의 조화가 아름답다. 높이는 15cm정도이다.

- 재 배 : 서리에 약하며 약간의 그늘이 필요하다. 종자를 직파 하거나 포기나누기, 뿌리껍질이 등으로 번식한다.
- 용 도 : 분화, 화단 및 낙엽수 밑에 지피용, 암석정원, 약용(앵초근)
- 유사한 식물 : 설앵초(식물체가 작고 꽃이 많이 피어 관상용으로 좋다.) 큰앵초(식물체가 크고 꽃은 단풍잎모양이며 꽃은 진한 분홍색이다)

□ 용 담

- 과 명 : 용담과
- 학 명 : *Gentiana scabra* var. *buergeri* Max
- 특 징 : 전국의 산야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로써 높이는 40cm 정도이며 8~10월까지 보라색의 꽃이 핀다.
- 재 배 : 햇볕이 잘 들고 배수가 잘 되는 곳이면 잘 자란다. 11월에 종자를 직파하거나 포기나누기, 삽목 등으로 번식, 연작시 선충의 피해
- 용 도 : 절화용, 지피식재 및 화단용, 분물, 약용(뿌리)
- 유사한 식물 : 큰용담, 과남풀, 칼잎용담(잎이 좁고 뽕족하며 꽃이 많이 많이 달린다), 비로용담(남한에서는 대암산에서만 자라는 희귀식물로 크기가 작고 꽃이 아름답다)

□ 층꽃나무

- 과 명 : 마편초과
- 학 명 : *Caryopteris incana*(Thunb) Mig
- 특 징 : 남부지방 산지의 별이 잘 들고 척박하고 건조한 절개지 사면이나 바위옆에서 주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로써 8~10월까지 보라색의 꽃이 피는데 작은 꽃들이 층층이 모여 피어 아름답다.
- 재 배 : 종자를 채종 즉시 직파 이듬해 발아한 것을 5~6월에 이식하면 당면개화가 가능함. 재배가 용이하나 비옥하면 오히려 죽는다.
- 용 도 : 절화, 절개지, 개활지 화단 등에 군식, 약용(뿌리를 이용, 난향초)

□ 금불초

- 과 명 : 국화과
- 학 명 : *Inula britannica* Var *chinensis* Regel
- 특 징 : 산야의 습지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로써 7~9월에 노란색 꽃이 피는데 지름은 3~4cm이며 높이는 30~60cm 정도이다.
- 재 배 : 습기를 좋아하나 내한성, 내건성이 강하며 주로 종자로 번식하며 봄에 새순을 잘라 심거나 뿌리를 분주해도 된다.
- 용 도 : 절개지 사면등에 지피용, 화단, 분화, 절화 및 식용(새잎), 약용(꽃, 선복화)
- 유사한 식물 : 가는 금불초, 벼들금불초(개화기가 조금 늦고 초장이 다소 긴 편이며 잎은 작다)

□ 구절초

- 과 명 : 국화과
- 학 명 : *Chrysanthemum zawadskii* Var *ltilobum* kitamura
- 특 징 : 전국에 분포하는 여러해살이 풀로써 가을에 지름 3~6cm의 흰색 또는 분홍색 꽃이 피고 높이는 50cm정도이다.
- 재 배 : 자생지 환경은 대부분 열악한 곳이므로 절개지, 개활지 등에 식재가 적합하지만 성장기간에는 일정한 토양습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광선 요구량이 크며 아무곳에서나 잘 자라는 편이다. 11월에 채종한 종자를 직파 또는 봄에 파종하며 꺾꽂이, 포기나누기로 번식하기도 한다.
- 용 도 : 화단 또는 지피용으로 군식, 약용(부인병)
- 유사한 식물 : 한라구절초, 포천구절초, 서흥구절초, 구절초, 낙동구절초, 산구절초

□ 개미취

- 과 명 : 국화과
- 학 명 : *Aster tataricus* l
- 특 징 : 산지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 풀로써 7~8월에 연보라색 꽃이 핀다. 높이는 1.5m정도 자라며 꽃은 지름 2.5cm정도로 여러개가 모여 달린다.

- 재 배 : 내한성이 강하며 4~5개월에 삼목을 주로하고 3~4년에 한번씩 분주한다.
- 용 도 : 화단, 절화, 분화로 쓰임 식용 및 약용
- 유사한 식물 : 별개미취(잎이 반상록성으로 남아 있고 개화기가 길어 많이 재배하고 있음), 좀개미취

□ 산 국

- 과 명 : 국화과
- 학 명 : *Chrysanthemum boreale* Makino
- 특 징 : 전국의 산야에서 자라는 여러해살이풀로 9~10월 지름 2cm 정도의 진한 노란색 꽃이 피며 높이는 1m정도 자란다.
- 재 배 : 별이 잘들고 물이 잘 빠지는 곳에서는 잘 자란다. 종자를 파종하거나 녹지삽을 한다. 응애와 진딧물에 주의
- 용 도 : 화분(초물분재), 도로변, 정원용, 식용(차), 약용
- 식 물 : 감국(꽃이 크고 남부에 많이 분포한다)